

## 【1차시】 보육시설 생활안전 교육



### 장소에 따른 안전수칙

#### ○ 보육시설 장소에 따른 안전수칙

##### <현관>

- 우산꽂이 등 쓰러지기 쉬운 물건은 고정시키거나 벽면 가까이 놓습니다.
- 현관입구에 물기가 생기면 수시로 닦아줍니다.
- 단체로 실외놀이터로 나갈 때는 차례를 지켜 신발을 갈아 신도록 합니다.

##### <복도와 계단, 베란다>

-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바닥에 발 모양을 표시합니다.
- 복도나 계단에서는 영유아들이 우측통행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 이동할 때는 줄을 서서 차례차례 이동하도록 지도합니다.
- 베란다 창문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 베란다 창문 주위에 영유아가 올라갈 수 있는 의자나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식당>

- 뜨거운 음식은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뜨거운 물이나 국, 음식은 안전한 장소에 놓고 배식합니다.
- 식탁보는 가급적 깔지 않습니다.
- 음식은 자리에 앉아서 먹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우윳병을 들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실외놀이터>

- 유리파편, 돌 등 위험한 이물질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실외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구급약품상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는지 항상 살핍니다.
- 실외놀이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려주어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 ○ 현장학습 시 안전수칙

### <현장학습 시 안전수칙>

- 사전답사를 통하여 현장학습이 이루어질 장소를 돌아보고, 영유아들의 동선을 예측하여 위험한 곳은 없는지 파악하기
- 현장학습 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위험을 예측하고, 주의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기
- 영유아들이 착용한 이름표에 어린이집, 교사의 전화번호 기입하기
-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비상약품 등을 준비하기
- 현장학습을 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 장소 이동시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동하기
- 영유아만 남겨놓고 교사 개인적인 행동은 하지 않기
- 영유아가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 함께 하기
- 현장학습 후 평가를 통하여 다음 현장학습 시 보완되어야 할 점 파악하기

### 현장학습 전 이루어져야 할 사전 안전교육내용 TIP!

- 차량 이용 시 안전과 예절 알고 지키기
- 현장학습 장소에서 항상 선생님을 보고 따라가기
- 현장학습 장소에서 혼자행동하지 않으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기
- 공공질서 및 체험 장소의 규칙 알고 지키기
-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의 대처 방법을 알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
-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 방법 알기



### <영아돌연사증후군 방지수칙>

- ① 아기를 똑바로 눕혀 재우고,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 재우지 않도록 합니다.
- ② 담배연기를 주의합니다. 주변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도 영아가 자는 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 ③ 폭신한 잠자리를 피하며,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아기의 요는 단단하여야 하고 요의 시트도 훌겁으로 하여 폭신하지 않게 합니

다. 담요를 사용할 경우 얇은 것을 이용하며 자는 중에 아기의 머리가 덮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④ 여러 명의 아기를 같은 침대에 재우지 않도록 합니다.

## <참고>

출처 : 김일옥(2011). 영·유아 수면건강과 안전. 퍼시픽북스

### ■ 예비부모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지침

- ① 되도록 임신 3개월 내에 산전 진찰을 받을 것. 균형진 영양 공급을 하고 미숙아 출산을 방지한다.
- ② 담배와 마약을 금한다. 담배와 마약은 SIDS의 위험을 높인다.
- ③ 10대에 임신하지 않는다. 10대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면 다시 10대에 임신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한다. 어머니의 나이가 10대일때 SIDS 빈도가 가장 높다.
- ④ 다음 임신까지 적어도 1년의 간격을 둔다. 임신 간격이 짧으면 SIDS 빈도가 높아진다.

### ■ 부모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지침

- ① 영아가 엎드려 자려해도 등을 대고 눕힌다. 엎드려 자는 영아는 등을 대고 누워자는 영아보다 SIDS빈도가 높다.
- ② 단단한 매트리스 위에 영아를 재운다. 침대에 아무 것도 두지 않는다. -침대커버, 베게, 충격흡수패드, 장난감 등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무거운 침대커버가 SIDS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 ③ 적어도 6개월까지 영아를 부모의 방에 있는 아기침대에 둔다. 아기 침대와 어머니와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것이 연구로 입증되었다.
- ④ 영아를 성인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인 침대는 아기에게 안전하지 않다. 소파나 의자에서 아기와 잠들지 않는다.
- ⑤ 영아가 잠자는 동안 포대기로 싸지 않는다. 아기를 싸개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하지 말고 충분한 옷을 입힐 것. 방안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과도한 난방은 영아의 SIDS 위험을 증가시킨다.
- ⑥ 영아를 흡연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영아를 담배를 피우는 집이나 차에 두지 않는다. 담배는 SIDS 위험을 매우 높인다.
- ⑦ 되도록 모유수유한다. 모유수유는 호흡기와 위장관계 감염 발생을 줄인다. 모유수유아가 인공 수유아에 비해 SIDS 발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⑧ 영아를 호흡기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키지 않는다. 혼잡한 것을 피한다. 아기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주의깊게 청결하게 한다. 아기를 안거나 함께 놀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한다. SIDS는 종종 가변운 호흡기 감염과 위장관계 감염(구토, 설사)과도 연관되어 발생한다.
- ⑨ 공갈 젖꼭지를 물려준다. 일부 연구에서 공갈 젖꼭지 사용이 SIDS를 낮춤을 입증하였다.
- ⑩ 아이가 숨을 쉬지 않거나 죽 처지거나 몸이 파래지면, 즉시 소아과 의사에게 보고한다.
- ⑪ 아이가 숨을 멈추었거나 젖을 올린 뒤 구역질을 심하게 하면, 즉각 소아과 의사에게 알린다.
- ⑫ 모든 양육자에게 위와 같은 중요점 들을 복사하여 게시해 놓고 모든 권장사항을 준수하도록 다짐을 받도록 한다.

○ 응급처치방법

〈베이거나 찔과상을 입은 경우〉

- ① 상처 부위를 식염수 또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 ② 깨끗한 천을 상처에 대고 출혈 부위를 꼭 눌러 지혈시킨다.
- ③ 지혈한 다음 소독한 후, 1회용 반창고나 거즈 등을 붙인다.

〈뺨족한 물체에 찔렸을 경우〉

- ① 못이나 유리조각 등에 찔린 후 찌른 물체가 피부에 박혀 있지 않으면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한 다음 지혈한다.
- ② 찌른 물체가 피부에 박혀 있는 경우에는無理하게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박혀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서 응급실로 데리고 간다.
- ③ 상처가 작아 보이더라도 찔린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경증화상〉

- ①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혀준다.
- ② 1도 화상인 경우는 상처에 항생제 연고나 화상용 연고를 발라주면 상처의 불편감을 줄여 줄 수 있다.
- ③ 깨끗하게 마른 수건이나 반창고 등으로 상처부위를 덮어주고 화상부위의 물집은 터트리지 않는다.
- ④ 항상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상처부위를 가볍게 닦아주고 항생제연고를 발라준다.
- ⑤ 화상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지는 등 염증반응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증상이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코피>

- ① 영유아를 편한 곳에 앉혀 안정시킨다..
- ②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해서 혈액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코의 앞부분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한다.
- ③ 엄지와 다른 두 손가락으로 코를 쥐고 5분간 서서히 압박한다.
- ④ 영유아는 윗입술과 잇몸사이에 둥글게 말은 거즈를 넣고 압박한다. 단, 영유아의 경우 입에 거즈를 넣어 무는 대신 코에 솜을 말아 넣는 것으로 조절하기도 한다.
- ⑤ 코와 뺨에 얼음물 주머니를 올려 지혈을 돕는다.

### <염좌: 삐었을 경우>

- ① 염좌 관절 부위와 연결된 건강한 부위까지 부목을 대어 염좌된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부목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사이즈에 맞게 막대, 자, 신문지 또는 박스 접은 것 등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염좌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높여준다.
- ③ 얼음주머니나 찬찜질을 해주어 붓지 않도록 한다.
- ④ 병원으로 이송한다.

### <골절>

- 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주위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영유아를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 ② 다친 곳의 옷은 조심스럽게 벗긴다. 필요시 옷을 잘라내야 한다.
- ③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가볍게 만져 감각이 있는지 물어본다.
- ④ 감각이 없다면 신경계나 척추손상이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한다.
- ⑤ 부러진 곳을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골절 부위의 위, 아래 부분을 모두 고정시킨다.

### <열성경련>

- ①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고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 ② 담요나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준다.
- ③ 전신을 골고루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다.

### "열성경련과 간질의 비교" TIP!

구분	간질	열성경련
발병 연령	연령관계 없음	6개월-3세
발작 지속시간	수분-수시간	대개 15분 이내
발작 특성	전신성 혹은 국소성	전신성
뇌파검사결과	비정상(간질파)	정상
체온상승과의 관계	체온 상승시 언제나 발생	체온상승 직후
발생 빈도	매일-매년	1년에 4-5회
가족적 경향	낮다	높다

### "간질발작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 TIP!

간질 발작이 발생하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① 발작을 하는 영유아를 누르거나 결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에 뭔가를 넣거나 억지로 입을 벌리려 하지 말고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입 안에 음료를 붓거나 음식이나 약물을 주지 않습니다.
- ③ 가능하면 발작 중에 발작이 일어난 영유아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 ④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놓고, 조이는 옷을 풀어주며, 주변의 날카롭거나 단단한 물체를 치워 줍니다.
- ⑤ 발작이 멈출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쉬도록 합니다.
- ⑥ 발작이 지속된 시간을 측정하며 발작하는 동안 머리 또는 눈의 움직임과 위치의 유형을 관찰합니다.

〈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119 신고요령>

- 응급 환아 발생 시 그 즉시 119에 신고한다.
- 119에 환아의 상태를 설명한다.
- 전화를 끊지 않고 119의 응급처치 요령을 전달받는다.
-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사는 환아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당신의 주소는?	→	OO구 OO동 OO번지 OO어린이집
주변 건물은?	→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건물(빌딩, 은행, 관공서 등)
어떤 상태입니까?	→	질병 또는 사고 상태 등
전화번호는?	→	☎ 000-0000(경우에 따라 휴대폰)

-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인계해야 한다.

#### ● 응급상황을 위한 준비

- 응급처치법과 상해예방, 전염성 질병 예방에 관해 훈련받는다.
-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모든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가 있어야 한다.
-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응급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절차과정 목록이 비치되어야 한다(응급절차과정은 어린이집 벽면에 붙여둔다).
- 견학을 갈 때는 휴대용 구급상자 및 비상연락망 카드를 준비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상시 준비한다.
- 사고보고서를 준비하여 사고발생 시 작성한다.